

# 청소년 교통사고 3건중 1건 자전거사고

최근 6년간 발생한 소아·청소년 교통사고 환자 3명 중 1명 이상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자전거 사고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는 경우는 5%가 채 안 됐다.

8일 질병관리본부가 2012~2017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현황 및 손상 발생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자전거 사고 환자 수는 4만6835명으로 분석됐다. 전체 교통사고 환자(27만828명) 중 17.2%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관련 심층 자료를 수집해 산출한 통계다.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 발생률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이 연령대 전체 교통사고 환자(5만1551명)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자전거 사고 응급실 환자 분석**  
**절반 가까이 머리 다치는데...70% 헬멧 안 써**  
**야외활동 느는 5~6월 최고...주말·오후 ↑**

자전거 사고 환자는 36.2%(2만117명)로 12.3%(21만5277명 중 2만6518명)인 성인보다 3배 높았다. 10~14세의 자전거 사고율이 15.9%로 가장 높았고 5~9세 12.9%, 15~19세 11.6% 순이었다.

손상 부위는 외상성 머리손상이 절반 가까이(46.6%) 차지했으며 상지(21.9%), 하지(15.7%)순이었는데 사고 발생 당시 헬멧을 확실하게 착용하고 있었던 경우는 4.8%에 그쳤다. 70.3%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25.1%는 미상이었다.

소아·청소년 자전거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3월 들어 늘기 시작(2월 1.9%→4월 5.8%)해 4월 8.8%, 5월 14.5%, 6월 15.6%까지 높아진다. 주중(11.0~12.7%)보다는 토요일(21.5%)과 일요일(21.4%), 오전(1.0~6.7%)보다는 오후(오후 3~5시 30.9%, 오후 6~8시 27.2%)에 자전거 사고가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손상 발생 시 활동 현황을 보면 여가 활동(53.1%)과 일상 생활(38.2%)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장소로는 주로 일반도로(44.5%)가 많았으며 골목길도 높은 비중(28.7%)을 차지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헬멧 착용, 음주 후 탑승 금지, 도로상 우측통행 및 차랑과 같은 방향 직선 주행, 이어폰·휴대전화 사용 금지, 전조등·반사등 사용, 보행자 주의 유도, 내리막 가속 금지, 브레이크 점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반 자전거 타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릴 때부터 안전한 자전거 운행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꾸준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뉴시스

## 파키스탄 수피교 사원 폭탄테러 5명 사망

파키스탄 라호르의 유명 수피(이슬람 신비주의 종파) 사원 인근에서 8일(현지시간)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파키스탄 경찰은 이날 "이번 폭탄테러는 수피 성자 알리 하지베리가 묻혀 있는 다타 다르바르 사원 외곽의 경찰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폭발 당시 사원 안에는 수백 명의 순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순례자와 행인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자들 가운데 일부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공격이 자살 폭탄 테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피교는 지역의 성스러운 인물과 성지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는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은 수피교를 적대시하며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수피 사원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왔다.

지역 언론에 심하게 과소된 경찰 치량이 찍혔는데 당국은 이 치량이 테러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원은 지난 2010년에도 2건의 자살 폭탄테러가 발생해 42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당했다. 라호르는 최근 몇 년 동안 비슷한 공격을 받은 편지보 지방의 수도다.

## 日 보육원생들에 차량 돌진 아동 2명 사망

일본에서 8일 오전 보육원생들이 인솔 교사를 따라 산책길에 나섰다가 돌진하는 차량에 부딪히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다.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시가(滋賀)현 오쓰(大津)시에 위치한 한 보육원의 아동 13명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인솔 교사 3명을 따라 인근 호수로 산책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보육원 인근 호수에 가기 위해 인솔 교사의 지시를 따라 줄을 지어 이동해, 보육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삼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대기하던 중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치였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차량과 충돌한 후 아동들이 서 있던 보도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다수의 아동들이 차량에 깔린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들의 나이는 2~3세로, 사고 직후 전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이 가운데 2세 남아아이 1명과 여자아이 1명 총 2명이 사망하고 다른 아동 2명은 의식불명의 중태라고 한다. 인솔교사 2명도 병원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2대의 운전자인 62세 여성과 52세 여성을 각각 과속운전상해 혐의로 체포해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 美 콜로라도 학교서 총격 발생 1명 사망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남쪽 하이랜즈랜치 지역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7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덴버 남쪽 외곽 지역인 하이랜즈랜치의 스템 스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8세 남학생 1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8명이 다쳤다. 용의자 2명은 체포됐다. 용의자들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성인 남성이며, 나머지 한 명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 데빈 에릭슨(18)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학생은 15살 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텨 스쿨은 유치원부터 12학년(고등학교)까지 185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다.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교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총격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관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수차례 총성이 울렸다"며 "우리는 그 총격을 가한 사람이 학생인지, 경비원인지, 경관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오후 총격 사건 이후 2대의 구급 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부상 학생들을 후송하고, 학교 인근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학부모의 모습을 내보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주지사는 "현지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공공 안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콜로라도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은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 전남도, 오염물질 측정 업체 지도·감독 '구멍'

전남도의 오염물질 측정대행 업체 지도·감독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강정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한 횟수는 총 1만 3096건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도심 속 어린이 모내기 체험 8일 서울 중구 농협 농업박물관 야외농원에서 미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전통 손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남도의 도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총 52번의 지도·점검 중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원 부과 2회, 경고 6회로 드러났다.

지난 몇 년간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피하고 오염물질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으나 전남도는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나마 8건의 행정처분도 2016년에 이뤄졌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단 1건도 없었다. 최근 2년간 위반 행위 업체가 1로 나타낸 셈이다.

김정환 기자

## '병원 과다 이용' 막는다...추가진료비 등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의료비 급증에 대비해 외래 방문이나 투약일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과다이용자에게 진료비를 추가 부과하는 등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 극단적 의료이용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극단적 과다이용자(상위 5%, 1%)를 유형화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복합 만성질환자 과다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엔 다

학제적 사례관리를 극단적 과다 의료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지금도 과다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의료이용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단은 2002년부터 연간 외래 내원일수가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에 동급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내용을 알리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과다 의료이용자는 연간 44만명 정도이며 그 가운데 10%인 44만명가량에게 안내문이 전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만9480원 의료

비를 절감하고 외래 내원 일수를 3.09일 줄였다는 연구 결과(2009년)가 있지만 안내 수준에 그쳐 가입자 측면에선 건강관리 지속성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이용 관리체계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종합운영계획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 기준, 과다 이용 컨설팅·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 잡혔다.

뉴시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해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조사할 때, 자활치료 중인 민력군

보건복지부 | (문의)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